

■ 제주도교육청, 초·중 학생 집단따돌림 실태조사 결과

# 응답자 8.2% “따돌림 피해 경험 있다”

### 초등학교 때 따돌림 경험 비율 높고 피해 지속적 연구진 “따돌림 발생시기 고려한 개입 전략 필요”

학교 안에서 또래 여럿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제주지역 초·중학생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왕따’로 불리는 집단 괴롭힘의 경우 한번 입은 피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보다 어린 유치원 시기부터 따돌림 예방을 위한 개입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실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초·중·고 학생의 집단따돌림 실태 및 요구조사’를 발표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제주국제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고보선 교수)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다.

연구진이 지난 7월 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15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386명 중 114명(8.2%)이 따돌림 피해를 경험했다. 남학생(42명, 전체

의 5.6%)보다 여학생(72명, 11.4%), 중학생(40명, 5.8%)보다 초등학생(74명, 10.6%)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돌림을 당한 기간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 110명의 35.5%(39명)가 ‘한달 미만’이라고 답했다. 한 학기 내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도 이와 비슷한 32.7%(36명)였다.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99명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7명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돌림을 겪은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초등학교 때 피해를 경험했다. 처음 따돌림을 당한 시기에 대해 응답자 107명의 45.8%(49명)가 ‘초등 1~3학년’, 39.3%(42명)가 ‘초등 4~6학년’ 때라고 답했다. 같은 반 친구(전체 105명 중 86명)에 의한 따돌림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실 안(122명 중 65명, 61.3%)에서 주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른 친구를 따돌렸던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응답자 1390명의

3.7%(51명)가 ‘있다’고 했다. 이는 실제 따돌림을 겪은 학생 수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 생각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남자보다 여자,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에서 가해·피해 경험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따돌림 피해 발생 시기, 성별의 차이 등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돌림이 시작되는 요인(다중응답)에 대해선 ‘마르고 뚱뚱하거나 몸이 약해서’처럼 신체적 특징 때문이란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친구들과 간의 오해와 갈등(44.8%)에서 비롯되거나 이상한 아이로 비춰지거나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30~40%를 웃돌았다. 따돌림을 가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엔 ‘상대가 괴로워하는 게 재미있어서’(40.3%),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 내 자신을 뽐낼 수 있어서’(36.3%), ‘힘이 약하다고 나를 무시하게 못하게 위해서’(33.0%), ‘그 아이에게 질투가 난 걸 풀기 위해서’(31.7%) 순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따돌림에 대한 개념 설정 △따돌림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개입

전략과 성별에 따른 접근 전략 수립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해결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하면 중학교에 가서도 피해가 이어진다는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볼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개념과 신고 위주가 아닌 또래 간의 배려와 존중 교육이 돼야 하며, 예방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행정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 모구리 야영장 야간엔 ‘보는 눈 없다’

### 5-8월 이외 관리인 없어 안전 사각지대 전략 우려

### 서귀포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 관리중”

서귀포시 모구리 야영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의 야간에는 청소년 시설인 모구리 야영장 내에서 음주 행위 등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모구리 청소년 야영장은 지난 2002년 20억원을 투입해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운동장, 주차장, 관리실 등을 마련하고 2003년 5월 개장했다. 최근 3년간 이용객은 2017년 3만599명, 2018년 2만5951명, 2019년 11월 기준 2만8236명 등 매년 2만명을 훌쩍 넘는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개장 이래 발생하는 모구리 야영장의 적자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부터 탄력 숙직제를 운영, 성수기인 5-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모구리 야영장의 숙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각종 화재 위험과 음주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

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력 숙직제 운영에 따라 성수기인 5-8월을 제외한 비수기 기간에는 야영장 내에서 음주 행위를 비롯해 화재 우려가 있는 숯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용객들에게 시설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가져온 물건 등을 확인할 권한은 없어 술 반입 등을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탄력적 숙직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야영장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퇴근하더라도 전화통신을 통해 이용객의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장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비수기인 1월부터 4월까지와 9월부터 12월까지 숙직 근무를 폐지하고 인건비 가운데 숙직 수당 등에서 연간 5000만원 가량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가을비 내리는 날 자전거 여행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린 26일 자전거동호인들이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 도로변을 달리고 있다.

## 제주시 버스승차대 힐링쉼터 계획 논란

### 공기청정기·냉방기 등 설치 버스이용객 만족도 향상 기대 재정압박 우려 목소리도 제기

제주시가 한라병원 맞은편에 기존 버스승차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버스승차대 힐링쉼터를 구축했다.

버스승차대 힐링쉼터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방기, 발열의자, 슬라이딩 도어, 와이파이 및 유리파손 감지 기능까지 접목한 종합 스마트 시스템이다. IoT시스템을 도입해 각 종기기에 센서기능을 장착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능을 이용, 버스승차대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제주시는 앞으로 버스승차대 이용률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설을 보완하고 버스이용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힐링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시설확대로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갈수록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버스승차대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막아줄 에어컨과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온열의자 등이 설치돼 있지만 개방형 버스승차대의 한계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날씨변화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약자 및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라병원 맞은편에 힐링쉼터를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 서귀포시 중·고생 대상 ‘진로멘토단’ 운영 호평

서귀포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까지 6년째 이어오고 있는 ‘청소년 진로멘토단’ 운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1개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진로멘토단 프로그램을 110회 운영, 총 2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반영해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호텔제과·제빵체험 등 실습이 가능한 수업을 확대 운영해 청소년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분야는 호텔제과·제빵사, 경찰, 드론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간호사, 호텔리어, 금융전문가 28명의 전문직업인이 학생들에게 미래를 미리 계획하는데 도움을 줬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을 대

서귀포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내년 멘토 섭외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